



**전통시장에 활기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주시가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들과 각 동 자생단체 회원들은 9일 사전에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신중앙시장과 중앙상가시장, 모래내시장 등 전주지역 전통시장에서 명절 준비와 선물을 구입하는 장보기 행사를 전개했다. /송효철 기자

# 추석 연휴, 전통문화를 즐기세요

전주시, 12~15일까지

한옥마을 등 14개소 개방

추석 당일 13일에도

경기전·역사박물관 운영

추석 명절을 맞아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풍성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전주한벽문화관 혼례마당에서는 오후 8시부터 전주시 대표 전통문화공연인 전주마당창극 '진짜진짜 응고집' 공연과 오후 7시 30분부터는 전주소리문화관에서 '별주부'가 됐다가 진행된다. 14일과 15일 이틀간 남천교 청연루에서 경기전까지 전주지접놀이

'한옥마을 전통연희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또한 12일과 15일 저녁 시간에는 한옥마을비밀공동체가 주관하는 한옥마을 골목길 야간 문화공연 '한 때를 가리하다'가 진행돼 가을저녁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방문객에게 잔잔한 음악을 선물한다.

전주한옥마을에서는 오는 14일 오후 2시와 15일 오후 4시 30분 각각 '경기전 수문장 교대식'이 진행되고, 경기전 내 어진박물관에는 △향낭만들기 △실록만들기 △전통머리띠만들기 △왕실의상 체험 △꽃놀이, 제기차기 등이 운영된다. 경기전과 어진박물관은 추석 당일도 포함해 이번 추석 연휴기간 휴무 없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주지역 14개 주요 문화시설도 추석당일인 13일을 제외하고 연휴기

간 다채로운 추석맞이 행사를 준비해 귀성객과 시민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한옥마을역사관에서는 '한옥에 깃든 아름다움, 기와 특별전이 진행되며, △태극 머리띠 만들기(부채문화관) △관소리/풍물강습(소리문화관) △한지벽걸이 만들기(완관문화관) △소주거르기(전통술박물관) △떡지접기(최명화문화관)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한옥마을 방송도 진행된다.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원하는 한옥마을 방문객은 한옥마을 경기전 광장 인근 '한옥마을방송국'에 들러서 사연과 신청곡도 남길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는 △한지 뜨기 △기죽 웃

놀이관 만들기 △투호 등 다양한 체험한마당 프로그램과 함께, 전주문화관 한문화관 음식테마전시(홍보관) 다양한 전시도 즐길 수 있다. 또,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도 △한지 연 만들기 △전통 팬이놀이 꾸미기 △한지함 만들기 △한복 찻선 카드지갑 만들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 및 전통 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무형문화재 13호 이의식 옷칠장 △제58호 김종연 민속목조각장 △제61호 김선에 지승장이 참여하는 '여유, 명장이 빛낸 솜씨' 전도 관람할 수 있다.

이밖에, 추석 당일에도 문을 여는 전주역사박물관에서는 추석특선영화가 상영되고, 율동놀이와 투호놀이 등 우리나라 전통놀이와 일본·중국의 전통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 추석 연휴, 응급진료 걱정 '뚝'

전주시보건소, 응급의료정보 어플리케이션 이용 당부

가까운 기관·휴일 지킴이 약국 위치·응급처치 등 소개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가까운 응급진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 달빛어린이 병원 등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해 지도 위에 주변 병원과 약국을 표시해주는 의료정보제공서비스로, 사용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조건에 따라 응급실·병원 등 원하는 응급의료기관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추석 연휴와 휴일 및 야간에 문을 연 응급의료기관을 알려주고, 해당 병원의 진료과목과 이용 가능 병상 수까지 실시간으로 제공돼 응급환자들이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까운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와 응급처치요령도 상세히 소개돼 있어 민간의 응급사과 발생 시 초기대응에 도움이 된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에서 모두 무료로 설치할 수 있으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응급' 또는 '응급의료'로 검색한 후 내려 받으면 된다.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onju.go.kr)와 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health.jonju.go.kr)에서도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 전북대병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대책 추진

주차장도 무료 개방키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민간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하고, 도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9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연휴기간 동안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당직근무 의사 지정운영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의료진간 비상연락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병원을 방문하는 내원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석 당일인 13일 오전 8시부터 14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동안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동안 무분별한 방문안으로 환자는 물론 방문안객의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환자

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병문안 시간을 통제한다. 연휴기간 동안 병문안 허용시간은 하루 2회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다. 중환자실은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오후 8시부터 8시 30분까지다. 또 신생아집중치료실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오후 7시 30분부터 8시까지다.

위에 언급한 병문안 허용시간 외에는 전부 통제되며 병문안을 온 방문객은 전일입구와 병실 내에서 방문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상부와 만 70세 이상 노약자, 만 12세 이하 어린이 △감염성질환자(발열, 설사, 복통, 구토 증상, 감기, 결핵, 피부질환, 눈병 등) △항암치료 등 면역기능 저하자 △종교단체 친지 동문회 등 단체방문객 등에 대해서는 병문안 병실 방문을 제한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박병술 시의회 의장과 전주시의회 의원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당 지역위원장이 9일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의회, 추석 맞아 완산구 사회복지시설 위문

박병술 의장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필요할 때"

전주시의회의는 9일 추석을 앞두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전주장애인정보교환센터와 전주 완산구 평화동 소재 하늘나무복지원을 찾아 라면과 화장지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은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렵지만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가족 그리고 이웃 간 따뜻한 온정을 전하며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오는 11일까지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 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설공단, 추석 연휴 이지콜 등 정상 운영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전성환)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이지콜 장애인 콜택시와 전주승화원 장사시설을 정상 운영한다. 단 성묘객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당일(13일)에는 화장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

또 귀성객 편의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총 10개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개

방한다. 추석 당일 종합경기장과 동물원, 노송천, 한옥노상, 건산 I·II, 삼천, 중화산, 서신, 실내체육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동물원 주차장을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종합경기장 주차장을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무료로 운영한다.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오거리주차장 등 8개 유료주차장은 유료로 정상 운영한다. 다만 노송천(1급지)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12일부터 추석 당일까지 이틀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의회 5분 발언

## 김승섭 "생태하천 체계적 유지관리 방안 필요" 주장

전주시 생태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의원은 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과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수십 년간 관련 국비와 시비가 집중 투자된 가운데 도심 수변 공간 조성단계라는 순차적 이행사업들은 잘 진행되었으나 최근 이곳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르면 특히 삼천 곳곳에 나무들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수질정화가 지속되고 방치된 가운데 하천 유속 감소 및 수위 상승으로 하천범람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하천 관리주체인 전주시가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삼천 주변의 수목을 제거하고 특히 계절적 범람지역의 관리 체계를 미리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주기적인 벌채와 간벌의 방식이 적절한 하천 식재 관리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는 생태하천의 복원에만 만족 말고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여건과 환경이 고려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 박선진 "택시승차대 정비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해야"

택시승차대 정비 및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진 의원은 9일 임시회 5분발언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며 "지금까지 택시 승차대는 특별한 기준 없이 필요에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되었으나 법적 규정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는 관련법규에 따라 택시승차대의 설치 및 시설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 전주시 곳곳에 소재한 택시승차대는 위치부적절로 시민과 기사들로부터 의견을 받거나 교통혼잡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택시기사들에게 가장 큰 일상의 애로는 용변을 보는 일이다. 별도의 휴게시설이나 화장실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관공서나 병원, 대형마트 등을 찾아 주로 용변을 해결한다.

박 의원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잠깐이라도 편히 쉬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 택시기사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면 시민들에게 친절 서비스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 김윤권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육아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운영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복지환경위원회 김윤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젊은 세대에서는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출산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와같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 정부는 영유아를 보유하고 있는 부모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려 아이를 키우자는 '공동육아', '품앗이육아'라는 취지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0년이 되어가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공간에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지자체에서 그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이용하는 부모와 자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2011년 7월 서신동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1호점이 개설된 이후 지금까지 1개소 뿐이라는 것은 전주시가 영유아 돌봄을 개인에게 또는 돌봄 시장 서비스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효철 기자

# 태풍 피해 현장서 부상 부안소방서 권태원 지방소방위 순직

전북소방본부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현장으로 출동해 작업하던 권태원(52) 지방소방위가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권 소방위는 전날 오전 9시 58분경 부안군 행안면이 있는 한 주택 간이창고 지붕 위에서 쓰러진 나무를 치우던 중 바다로

추락했다. 그는 지붕이 주저앉으면서 3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권 소방위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소방본부는 유족과 상의해 소방서장(號)으로 장례를 치를 방침이다. /뉴스

# 군산소방서, 도서지역 재난발생 대비 초기 대응역량 강화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에 따라 발생하는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소방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소방서에서 따르면 오는 9월말까지 도서지역 재난발생 및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소방정 출항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날 30일 개야도에서 실시한 재난 대비 출항 훈련을 시작으로 지난 3일에는 어청도에서 훈련을 실시했으며,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소방력 동원시간 단축과 도서지역으로의 소방력 이동에 초점을 두고 소방서 내 최소 소방력으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훈련을 추가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소방서, 추석 명절 식용유화재 주의 당부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추석 연휴 명절음식 준비 중 (전·튀김 등) 식용유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식용유는 인화성 액체로 특히, 10여 분 정도 가열하면 화재로 발전할 수 있고 화재가 발생 되게 되면 불꽃은 식용유에 물을 끼얹게 되면 수증기로 변한 물이 기름과 함께 튀어 불이 주변으로 더욱 번질 수 있어 더욱 조심하고 불을 끄더라도 재 발화 되는 경향 있어 조심 해야한다.

이에 식용유 화재 대처법으로는 ▲불꽃은 식용유에 배춧잎·상춧잎을 다량으로 넣어 식용유 온도를 낮추는 방법 등이 있다. /익산=정민천 기자